

## 제 10차 EFA 고위그룹 회의

태국 줌티엔, 2011년 3월 22-24일

### 줌티엔 선언문 (Jomtien Statement)

1.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2011년 3월 22-24일 태국 줌티엔에서 개최된 「제 10차 EFA(모두를 위한 교육) 고위그룹회의」에 참가한 각국 장관, 양·다자 기구 고위 관료, 시민사회의 대표들은 주최국인 태국 정부의 환대에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방사능 재해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명하는 바이다.
2. EFA 목표시한인 2015년이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은 현재,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부분의 EFA 세부분야에서 목표와 성과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 6천 7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미취학 상태로 남아있으며, 성인인구의 17%가 비문해 상태에 있다. 모든 EFA 목표의 달성과 교육권의 전면적 실행을 위하여 우리는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의 시급하고 강력한 실천을 요청한다.
3. EFA 목표의 성과는 세부목표와 국가별로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을 증가에 있어서는 놀라운 진전이 있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초등교육의 보편화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청소년·성인 교육, 직업교육·훈련, 양성평등과 문해교육, 교육의 질 제고와 같은 기타 목표들의 성과는 미미하다. 아이들과 청소년, 성인들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와 지식, 기술의 습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교육시스템이 유아기에서 성년기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전반을 뒷받침하고, 가정에서 학교로의 단계별 승급과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굳게 믿는다.
4.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한쪽의 희생은 담보로 한 성과 추구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한다. 형식·무형식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영역에서의 실질적 학습 보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목표가 반드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학습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학습 결과를 측정·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는 한편 ICT와 같은 교육전달의 부가적인 방식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고등교육과 연구는 교육의 질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 기회의 확대와 질의 제고 모두에 있어 자격요건과 필요자원을 갖춘 능동적인 교원의 충분한 공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관련 법 체계 도입을 위한 전략적·참여적 과정을 주도하고, 양질의 교수 학습 제공을 담보하는 훈련, 직무발전과 근무환경 조성 등 교원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정책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5. 교육 평등의 확립은 우리가 대응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EFA의 성과는 성(性), 소득, 거주지, 국적, 장애, 언어, 인종, 종족과 같은 다양한 약점들과 차별에 의한 불평등으로 저해되고 있다. 여아 및 성인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장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 비문해 성인 인구 7억 9600만 명의 약 3분의 2가 여성이다. 특히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성 역할고정 및 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여성의 소득 능력과 국가의 전반적인 보건 및 교육 발전에 있어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혼, HIV/AIDS 및 지속되는 아동노동 또한 국가의 EFA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학교 급식 제공, 현금 지급과 같은 효과적인 수단을 강화하고,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탐구하며, 자원을 동원할 것을 약속한다.

6. 우리는 교육의 주된 이해당사자인 각국 정부가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GNP의 최소 6% 혹은 공공지출의 최소 20%를 교육에 할당하고, 아디스아바바 선언문에 명시된 효율적인 재원의 사용을 권장한다. 우리는 저소득국가 내 주요 EFA 목표 이행을 위해 EFA 속성 진행사업(FTI)의 기금 확충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정치·재정적 합의, 그리고 미화 16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약속 이행을 요청한다.
7. 분쟁과 재해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의 교육 보호는 더 이상 등한시 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학교는 무장단체 요원의 목표물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 특히 여학생과 여교사들은 폭력적인 분쟁상황에 매우 취약한 존재이다. 따라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보고체계가 필요하다. 교육은 관용과 상호존중의 가치를 전달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평화재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 및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건의 핵심 수단으로서 추진하고 관련 재원확충 및 전달에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호소한다.
8. 교육권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행보고과정에 젊은 계층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다양한 수혜자들의 전반적인 참여가 지역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장려·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기구들은 국제인권협약에서 인정하는 사회 참여권을 지닌 만큼, 적법한 사회적 행위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9.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고, 인간안보를 증진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충분하다.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성취를 위한 교육의 핵심적 역할은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축적되는 지식과 기술은 수혜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빈곤 탈출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나아가 양질의 교육은 더 나은 건강, 민주사회 구축을 위한 활발한 시민 참여, 환경인식 제고 및 생산성 증대 등 많은 혜택을 수반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초등교육의 무상·필수 제공을 공표한 지 약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전 세계의 여아와 남아, 여성과 남성들 모두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개별적·집단적 책임을 갖고 있다.
10. 국제사회는 교육 소외계층 포괄을 위해 남-남, 남-북-남 협력, 민간 기업·시민 사회를 포함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같은 조화로운 협력과 혁신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유네스코가 다른 EFA 협력기관들과 함께 EFA 조정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내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11. 20여 년 전 155개국의 대표단이 세계 EFA선언을 채택한 이 곳 쪼티엔에서, 우리는 EFA 성취를 위한 우리의 약속을 거듭 확인한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고 이 목표의 성취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자.